

# “ 주님의 것이오니 성로코 ”

글\_서희정 마리아 | 그림\_홍미현 세레나



빵이 다 구워졌다. 녀석은 냉큼, 빵을 입에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나도 있는 힘껏 녀석을 쫓아 뛰었다.

“멍! 멍!”

이내 숨이 차올랐지만, 가뿐 호흡도 나의 호기심을 멈출 수는 없었다.

대체 우리 개는 매일 갓 구운 빵을 물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를 전에는 골목에서, 어제는 마을 입구에서 녀석을 놓치고 말았다. 오늘은 기필코! 녀석의 목적지를 알아내고 말테다! 녀석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근처 숲으로 들어갔다. 헉... 헉... 헉... 숨을 고른 후, 고개를 든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녀석이 한 남자의 허벅지를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녀석이 그 남자의 허벅지에서 흐르는 고름을 핥고 있음을 알았다. 매일, 이 남자에게 빵을 갓 주고 이렇게 상처를 핥아주었던 모양이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제 이름은 로코라고 합니다.”

로코씨는 프랑스 왕국의 시장 아들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 주었지만, 그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전염병에 걸린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다 그만 자신도 전염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한동안 환자들을 돌보았다면 거기서 지내시지 왜?”

로코씨는 그저 옷을 뿐이었지만 보아하니 전염병에 걸렸다고 마을에서 쫓겨난 모양이었다. 병에 걸렸다고 그동안 도와준 은인을 내쫓다니...

“참, 딱하십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더라면, 재산을 잃을 일도 없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건강을 잃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난 진심으로 로코씨가 답답했다. 로코씨는 옆에 있던 내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으니, 잃은 것이 아니라 돌려 드린 거죠, 뭐.”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며칠 후, 로코씨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돌려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나중이야 누명을 벗었지만 이미 그는 목숨을 잃은 후였다. 분명 로코씨는 감옥에서 죽으면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겠지. “이 목숨도 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난 갓 구운 빵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 빵도 나의 것이 아니니 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멍! 멍!”

녀석도 같은 생각인 모양이다.



## “인간 배아 대상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죄가 됩니다. 인간 배아는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그리고 모든 태어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비록 타인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실험이라 하더라도, 무고한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생명의 복음 63항 참조)

글\_생명위원회